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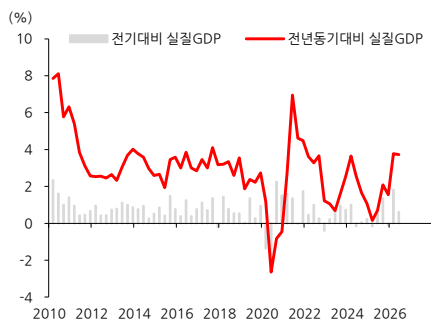
Macro Review

2/4분기 한국 GDP: 연간 3%대 성장 유력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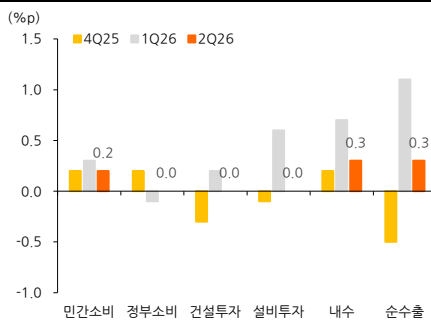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2/4분기 GDP: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3.7%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 기여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올해 성장은 3%대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2/4분기 GDP 예상치 상회

한국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0.6% 성장(전년동기대비 3.7% 성장). 수출(+1.4%)이 재차 증가했고, 민간소비(+0.4%)와 설비투자(+0.2%) 또한 양호한 흐름 유지. 산업별로는 제조업(+1.2%), 서비스업(+1.1%) 동반 개선. 반면 건설투자(-0.2%)는 감소 전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8% 기록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 흐름 유지. 순수출(+0.3%p)과 내수(+0.3%p)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에 기여. 내수에서 투자보다 민간소비(+0.2%p) 성장기여도가 우세. 민간(+1.0%p)이 성장 주도. 반면 정부(-0.3%p)는 재차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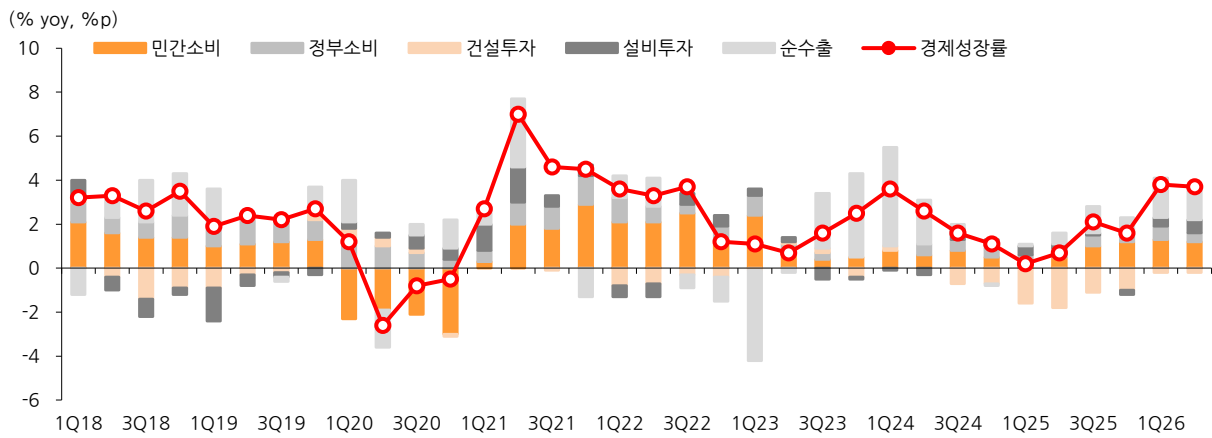
3%대 성장 유력

올해 3%대 성장 달성이 가능할 전망. 하반기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국내 투자 환경 또한 우호적일 것이기 때문

제조업 성장 견인 지속 예상.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둔화됐고 수출단가 상승률도 정점 통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가능성. 다만 이는 상반기 반도체 실적이 워낙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 절대적인 수출 규모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며 성장을 이끌 전망.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내 제조업 투자 환경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대규모 민관 합동 투자가 본격화되며 설비투자 전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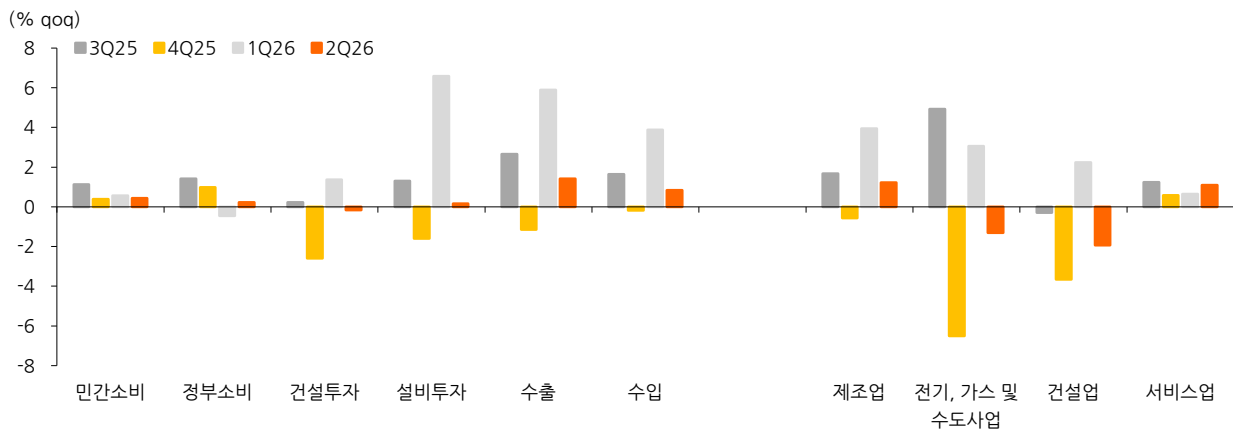
소비도 무난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가계 구매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양호. 최근 국제유가 우려가 재차 확대되면서 소비 환경에 일부 부담이 나타날 수 있으나,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다면 소비 위축을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하반기에도 2% 후반대 수준 성장하면서 연간 3.3%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그림1] 2/4 분기 GDP: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부지표가 성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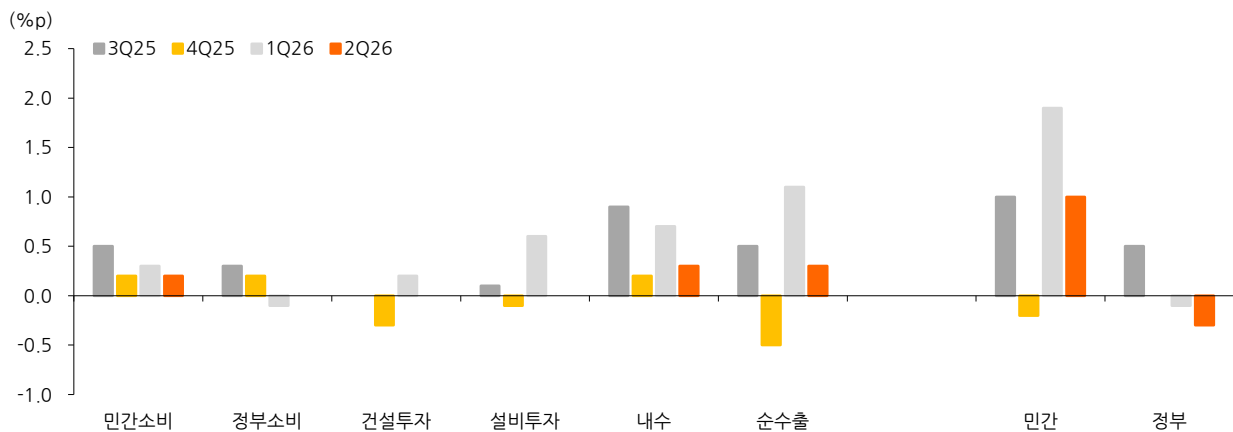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지출항목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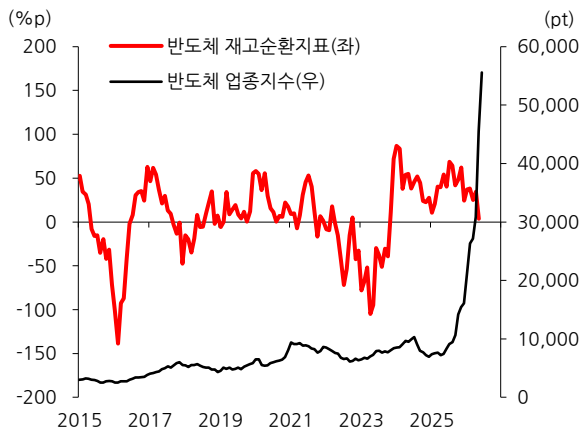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GDP에 대한 전기대비 기여도: 내수와 순수출 동반 개선 지속, 민간 주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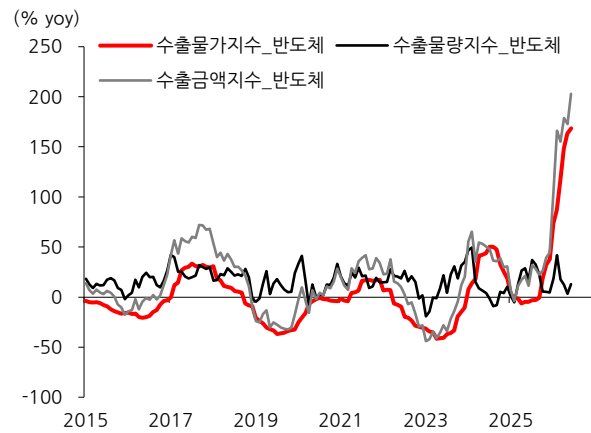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반도체 재고 사이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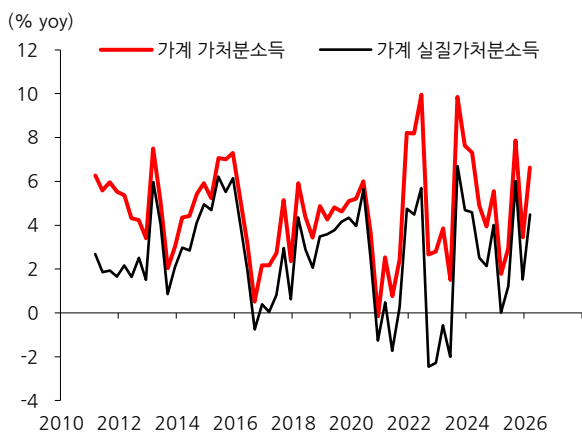
주: 재고순환지표(%p) = 출하 증감률(%) - 재고 증감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수출단가 상승률은 정점 통과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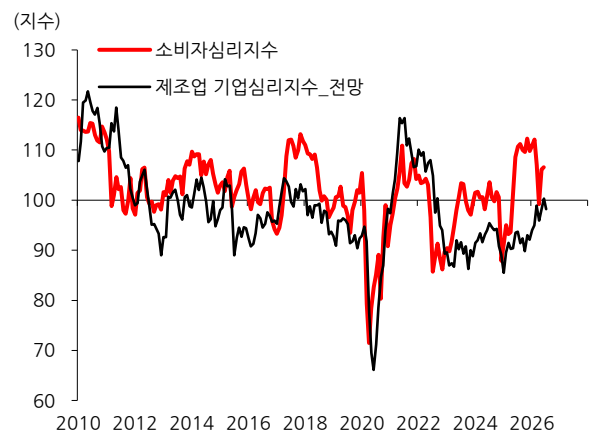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 구매력이 양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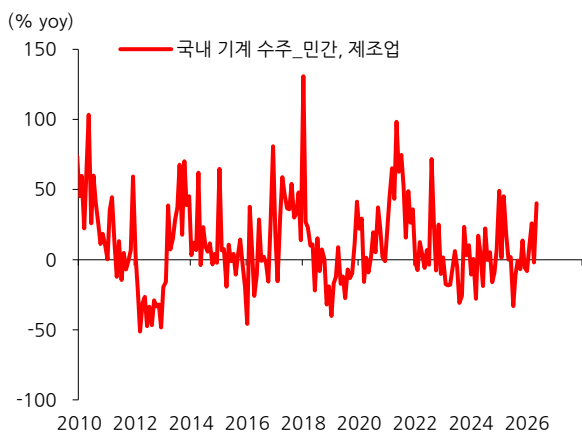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대외 불확실성에도 심리지표가 크게 꺾이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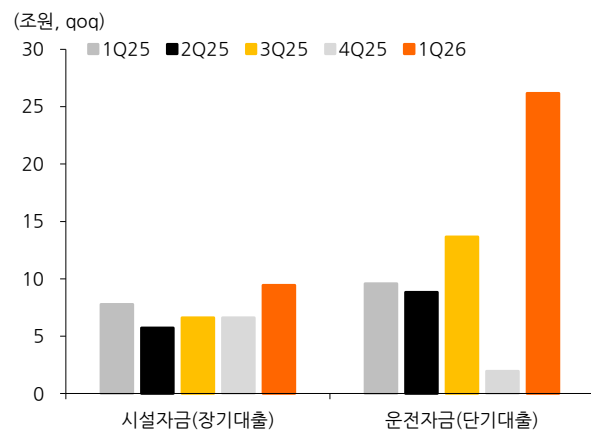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민간 제조업 기계 수주 반등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설비투자 등에 활용되는 시설자금 수요 지속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